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0> 전생의 업은 주력 힘을 빌려야

지난 가을 봉암사에 성철 스님의 <백법문>을 강의할 일이 있어 갔다가 근처 토굴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사는 한 스님을 찾아와 만난 적이 있다. 십수 년 화두 하나만 들고 살아가는 순수한 남자에게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스님이다. 그 스님이 물었다. “스님, 제가 참선을 하다 공부가 안 되면 전생의 업장이 많다고 생각되어 그 업장을 없애려고 ‘예불대참회론’으로 참회하는 절을 하면서 목탁도 내리고 능엄주 주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방에서 가깝게 지내던 스님들이 찾아와 이런 저를 보더니 기도하는 스님이라고 서로 속닥거리면서 외면하고 멀리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아주 친하던 스님들까지 저를 외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언짢습니다. 은사스님께 배운 대로 공부하고 있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절과 주력 의미 그 본질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알고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참회하는 절과 주력이 참선이 되고, 참선이 절과 주력이 되는 도리를 모른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가귀감> 50장에서 말한다. 持呪者 現業 易制 自行可達 宿業難除 必借神力 주력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금생에 지은 눈에 보이는 업은 비교적 다스리기 쉬워서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있지만, 전생의 업은 깊이 뿌리박혀 쉽게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주력의 신비한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주(呪)는 주문을 말하니 범어 mantra를 번역한 것이다. 신주(神呪), 비밀주(秘密呪), 다라니(陀羅尼), 진언(眞言)이라고도 하며, 음역은 만다라(曼荼羅)이다. 이 주문 안에는 모든 불보살이 사바세계 온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이 담겨 있어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뜻이 숨어 있으므로 이 주문의 참뜻은 범부들이 합부로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

주문과 하나된 순간 부처님 신통력 드러나

무의식 속 숨어있는 전생 업장 빠르게 소멸

고 한다. 주문에 들어있는 미묘한 뜻과 신비한 힘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중생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하여 ‘신주’ 또는 ‘비밀주’라고 하고, 또 모든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뜻에서 ‘다라니[總持]’라고 하며, 이 주문은 참되어 거지 없는 말이라는 뜻으로 ‘진언’이라 말하기도 한다. ‘주(呪)’에 담겨 있는 부처님의 뜻을 어떤 각도에서 풀이하는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뿐 그 근본 바탕은 같다. 이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 담겨 있는 주문을 정성껏 외움으로써 생기는 힘을 주력이라 한다. 이 주력을 통해 많은 장애를 제거하여 성불할 수 있고 뜻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중생의 업은 전생의 업과 금생의 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금생에 지은 업

은 눈앞에 있어 자신이 바로 알 수 있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금방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전생에 지은 업은 없애고 싶어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뿌리가 깊으므로 마음대로 없애지를 못한다. 그 영향으로 올바르게 살고 싶어도 사된 곳으로 떨어지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더러운 곳에 물들며 먹을 썩어도 박박한 일만 생긴다.

착한 일을 해도 집안에 흉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재난이 닥치며 살생을 하지 않았는데도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다. 이런 일은 전생의 업보가 아니면 금생의 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력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摩登得果 信不誑矣. 故 不持神呪 遠離魔事者 無有是處 마드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진실로 속이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

주(神呪)를 지니지 않고 마군의 장애를 멀리 벗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능엄경>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마드네는 천한 종족의 아리따운 딸인데 어느 날 탁발 나온 잘 생긴 아난존자를 보고는 첫눈에 반하였다. 마드네는 사악한 주문으로 아난을 유혹하려고 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 사실을 아시고는 정수리에서 오색 광명을 놓으시니 그 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꽃들이 떠오르고 연꽃마다 부처님의 화신이 앉아 계시면서 ‘능엄신주’를 말씀하시고는 문수보살에게 그 신주를 가지고 아난을 구해오라고 명하였다. 그 신주를 외워 마드네의 사악한 주문이

소멸되자 문수보살은 아난과 마드네를 데리고 부처님 처소에 돌아왔다. 마드네는 전생의 업장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출가하여 이 신주의 공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주력을 하는 법은 <능엄경>에 나오는 ‘대불장능엄신주’ 이든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대다라니’든 ‘옴 마니 반메 홀’이나 법신 진언 ‘옴 아비라 홀 캄 스바하’든 어떤 신주라도 그 뜻을 헤아려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외워 그 주문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주문을 외우는 것도 화두 드는 법과 비슷하다. 말없이 나 뜻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문속으로 들어가 주문과 하나가 되면 다른 잡념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마음이 맑고 깨끗해진다. 주문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가 ‘주문’이 되고 ‘주문’이 ‘나’가 되어 주객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주객의 경계가 사라짐은 모든 시비 분별이 끊어지는 것이고, 시비 분별이 모두 끊어짐은 시비 분별에서 오는 온갖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온갖 번뇌가 텅 빈 자리에서 빛으로 충만한 부처님의 세상이 나타나니, 여기에서 부처님의 신통력이 드러난다. 이 신통력으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전생의 업장이 빠르게 소멸된다. 너무 미세하고 뿌리 깊게 숨어 있어 눈으로 볼 수 없고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전생의 무거운 업장을 단숨에 없애 버린다. 마군의 장애와 같은 전생의 업장을 남김없이 녹여버리니, 이와 같이 신주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공덕과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서산 스님은 ‘신주를 지니지 않고 마군의 장애를 멀리 벗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한다. 간혹선이 더 좋고 주력은 보살 것보다 시비할 것이 아니라 주력 하나만 제대로 알고 수행해도 전생의 업장을 벗어나 지금 부처님 세상처럼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 원순 스님(송광사 인입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ust.org)

나자신으로서 살아가기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살림

수행하는 스님네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절 선방에서 한 켄 살림 잘 냈지”라고 말입니다. 살림? 무슨 말일까요? 역대 선사들은 ‘자기 살림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레야 앵무새처럼 남 얘기 떠들어도 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가르침을 말한 것입니다. 살림은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 또는 그 형편이란 뜻으로, 살아가는 형편이나 정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집안에서 쓰이는 세간 전체를 의미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살림이란 말은 불교의 ‘산림(山林)’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실, 산림은 절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말이 절의 재산관리인이 아니라 일반 여객의 재산을 관리하고 생활을 다잡는 일까지를 가리키게 된 것이죠. 절에서 살림을 맡은 스님은 원주라 했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귀하게 여긴 것이지요.

살림과 관련해 의미가 깊은 속담들도 많습니다. ‘살림에는 눈이 보며’라는 말이 있지요. 살림을 잘하려면 눈썰미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살림에는 날날이 살펴 보살피는 것이 제일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수행자는 안목을 갖고 살림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일대사인연을 해결하고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했듯이, 수행자는 수행하는 살림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재가불자들도 자질구레한 살림살이에 집착하지 말고, 수행의 살림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25)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7강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 14

13장으로 <금강경>의 또 한번의 연주가 끝났다. 변주는 이번에도 핵심의 주 노트를 반복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주(住), 즉 심리적 토대 없이 사는 법을 연습하라.” 저 너머 초월이며 절대선의 얼굴을 하고 있는 토대는 파퓰러 우리네 일상에 한 모금 청량수나 든든한 안전판 같아 보이지만, 실상 위태롭기 한량없고 부수기는 더더욱 어렵다. <금강경>은 이 초월적 토대에 기대려는 오래된 유혹을 타파하는 충격 장치이다. 그래서 올, ‘소승’이 아니라 ‘대승’이며, ‘최상승’이라고 불렀다. 백척간도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30미터 높이의 장대끝에서 발을 내딛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디도 의지하지 않는 힘과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되고, ‘자기 안의 신비한 힘의 원천’이 빛을 밝히고, 힘을 들이부어주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만해 <님의 침묵> 또한 그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

제 14장. 수보리의 감격

14장의 첫 머리는 “어디에도 기대지 말라”는 이 ‘아득한’ 소식에 절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 사람의 위대한(稀有) 통곡이 소개된다.

“이때 수보리가 이 경전을 듣고, 그 깊디 깊은 소식을 이해하고는, 체루비음(漣淚悲泣), 눈물을 펄펄 쏟으면서 부처께 사죄했다. ‘회유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께서 이토록 깊은 경전을 설하셨으니, 그동안 제가 익힌 지혜로는 이 경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나이다.’”(爾時, 須菩提聞說是經, 深解義趣, 涕淚悲泣, 而白佛言, 希有, 世尊, 佛說如是甚深經典, 我從昔來所得慧眼, 未曾得聞如是之經) 수보리는 드디어 부처의 반복되는 변주 안에서 집요하게 반복되는 가르침의 키노트를 체회(體會), 온 몸으로 승인했다. 통곡으로 가르침은 완성되었다. 슬퍼도 울지만, 기뻐도 운다.

여답이지만, 내게 경전의 이해는 전공석화, 혹은 정하니 열음물을 깨듯 오기보다, 물에 젖듯 오래 스며들어 왔다. 아직도 그 침침연(浸漣然), 스며들음은 계속되고 있다. 경전의 내용은 첫 대면에서는 삶의 실감과 바로 스카프되지 않는다. 낯선 문자에, 낯선 어법, 이국의 정취가 더해져 그저 신비로만, 저너머의 희유한 자에게만 열려 있는 예외적 촉복으로 느껴질 뿐이다.

조금씩 문자의 의미가 집히고, 주석들과 일상의 사례들이 이 낯선 문자들과 손을 잡

아 나간다. 이 악수가 확고해질수록 <금강경>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실감을 얻는다. 한편 적음과 이해의 기쁨이 자라지만, 현실과의 괴리는 배반과 좌절도 시시때때 몰아친다. 그렇지 않은가. 재작음과 수정의 과정을 거치며, 경전과 삶은 어느 수준에서 화해하고 일체감을 얻는다. 수옹과 배제의 경계가 분명해지는 것이 깨달음의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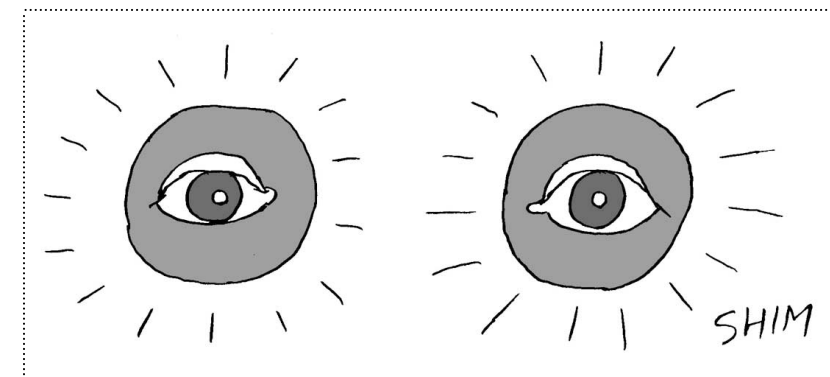
깊어가는 강물

어쨌거나 삶이 세월과 더불어 정해지는 것이라면, 깨달음 또한 그러할 익숙해지고 길들어지는 어떤 것이다. 책의 이해 또한 그렇다. 삶과 더불어 책의 의미는 더 떨리고 삶을 헤집으며 나를 파고든다. 말의 무게가 달라지고, 거기 자기만의 색깔과 표정을 얻게 된다. 그 ‘구체화’가 없거나 미약하다면 그것은 아직 책을 읽은 것이 아니다. 옛 어른들은 이 생경한 동거를, “책은 책이고 나는 여전히 나일 뿐(書自書, 我自我)”이라고 혀를 찼다.

<금강경>의 수지독송도 그렇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 가장 흔히 독송되는 경전이 이 ‘깊어가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골에만 맴돌면, 저는 저대로, 나는 나대로일 뿐 아니겠는가. 오래 읽고 하다보면, 사구게 한 돌이 입에 불고, 일마다 문득 문득 그 가르침이 머리 속에 떠오르다가, 눈앞을 가리다가, 사람 얼굴에 나붙게 된다.

언성을 높이거나, 울컥하는 일이 있거나, 주먹이 올라가다가도, 돈을 따지거나, 명예

를 계산할 때, 문득 ‘아상’이며, ‘복덕’이며, ‘마음의 항복’이며, ‘응무소주이생기심’이 떠오른다. 그 떠올림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어느덧 인격이 된다. 그 인격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일을 처리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경전의 사구게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심원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금강경>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라’더라도 이 경전의 사구게 하나를 수지독송



하는 공덕만 못하다.’고 했던 것이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금강경> 14장의 내용은 길다. 좀 불경스럽지만 내용을 요약해 드린다. 1. 감격의 통곡이 있고, 수보리는 우려를 표명한다. 이 법문을 “나, 수보리는 이해하겠으나, 다음 세대, 말세의 중생들이 알아먹겠습니까” 하고서, 이어 “만일, 이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정말 희유한 통찰력의 소유자”(若復有人, 得聞是經, 不驚 不怖 不畏, 當知是人, 甚為希有)라고 찬탄하기도 한다.

체루비음, 법문 듣고 뜨겁게 울다

2. 이어, 변주 하나가 삽입된다. ‘반야바라밀을 얻은 사람은 상(相)을 떠났으므로, 신체가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원망이 나, 분노, 저주의 넘에 자신을 태우지 않는다’ 자기염려로서의 상(相)을 떠난 인욕바라밀의 이 위대한 행동을 예시하고 나서 수

보리는 하고 싶었던 말을 아귀짓는다. “그래서 수보리아, 마땅히 일체의 상(相)을 떠나야 한다. 그런 다음, 아늑다라삼삼삼보리의 마음을 발휘해야 한다”(須菩提, 菩薩應離一切相,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3. 자신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습관인 상(相)을 여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색성행미촉법’의 대상에 토대를 두지 않고, 무소주심(無所住心), 즉 토대없는 마음을 낼 것(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 法生

心, 應生無所住心)이며, 이를 실천하는 위대한 실천자 보살은 “일체중생을 이익(利)케 하고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보시를 실천한다.”(菩薩為利益一切衆生故, 應如是布施) 하나 유의할 것이 있다. 지금 ‘중생’이라고 했지만 보살은 ‘중생’에 대한 차별의식을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역시나, 중생을 요의(憐愍)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의식 속에서, ‘저는 중생, 나는 그를 위해 시혜를 베푸는 보살’이라는 추한 의식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이것이 <금강경> 전편을 통해 반복되는 경고였음을 기억할 것이다. “여래가 말하는 일체중생은 그러나 중생이 아니다.”(如來說一切諸相, 卽是非相. 又說一切衆生, 卽非衆生)

어둠 속에 갇힌다

<금강경> 14장은 이어진다. 4. ‘만일 보살이 대상(法)을 의식(住)하고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그는 밝은 대낮에 눈을 뜬 것과 같아 수많은 사람을 환하게 볼 수 있다.’(須菩提, 若菩薩心住於法而行布施, 如人入闇, 則無所見, 若菩薩心不住法而行布施, 如人有目, 日光明照, 見種種色) 이 역시 하나를 제발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눈앞의 이익에 잡히면, 자기 본 바와 국량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적절한 조처를 잃는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꼭 그렇다. 내가 늘 새기는 영화 <대부>의 명 대사가 있다. 아버지 말론 브란도가 후계 아들 알 파치노에게 말한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을 그르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